

# ‘새침’의 사전 처리와 ‘새침을 떼다’의 형성\*

홍석준\*\*

|| 차례 ||

- I. 서론
- II. ‘새침’의 사전 처리
- III. ‘새침하다’류 단어와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출현 시기와 빈도수
- IV. ‘새침을 떼다’의 형성
- V. 결론

【       】

이 글에서는 ‘새침하다’의 ‘새침’이 명사가 아니라 어근임을 밝히고 ‘새침’에 대한 국어 사전에서의 처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새침하다’류 단어와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가 문헌상으로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의 선후관계를 따져 봄으로써 ‘새침을 떼다’의 형성 방법을 추론해 보았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새침’을 명사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새침을 떼다’ 전체의 의미가 ‘새침’에 쏠려 들어가서 ‘새침’ 홀로 명사로 사용되고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새침을 떼다’는 의미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만큼 사용빈도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새침’이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되지는 못한다. 어근 ‘새침’이 최근에 2000년대를 지나면서 명사적 용법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새침’의 지위는 어근이다.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출현 시기와 사용빈도수를 조사하여 ‘시치미를 떼다’가 ‘새침을 떼다’보다 일찍 출현하여 최근까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새침을 떼다’는 ‘새침하다’의 ‘새침’과 ‘시침을 떼다’가 혼용되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새침하다’와 ‘시침을 떼다’의 의미가 비슷하고 ‘새침’과 ‘시침’이 형태적으로도 유사하여

\* 이 글은 2018년 제326차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8월 22일)에서 발표한 것들이다. 그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아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송현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시침을 떼다’의 ‘시침’이 ‘새침’으로 교체되었다고 본 것이다.

주제어: 새침, 어근, 국어사전, 새침을 떼다, 시치미를 떼다, 사용빈도수, 의미의 쓸림 현상, 혼효

##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국어사전에서 ‘새침(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의 품사를 명사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 ‘새침’은 ‘새침하다’의 어근이며 ‘새침을 떨다’와 같은 연어 구성이나 ‘새침을 떼다’와 같은 관용구에 서는 어근으로서 명사의 자리에 쓰인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sup>1)</sup>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침’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sup>2)</sup> (밑줄은 필자의 것)

**새침**: (명사)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 예: 낮에 길에서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새침을 떨던 것이 영큼스럽기도 하다. <<윤홍길, 목시의 바다>>  
본말: 새치미. 참고 어휘: 시침<sup>1)</sup>.

**새침-하다**: I. (형용사) ①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 예: 새침한 표정을 짓다/그녀는 새침하게 돌아섰다/그녀는 짐짓 새침한 얼굴로 명훈을 흘려보았다. <<이문열, 변경>>/소리 없이 새침하게 자리에 앉는 그 자태는 연산의 마음을 더욱 불붙게 한다. <<박종화, 금삼의 피>> ② (북한어) 날씨 따위가 푸근하지 못하고 조금 쌀쌀하다. 예: 초가을의 밤바람은 시원하다기보다 새침

1) 이 글에서는 ‘어근(語根)’을 이익섭(1975)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라는 뜻이다. ‘깨끗하다’의 ‘깨끗’, ‘거뭇하다’의 ‘거뭇’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에서 2018년 8월 6일에 찾았다.

한 맛이 있었다. <<조선말 대사전>>

II. (동사) 짐짓 쌀쌀한 기색을 꾸미다. 예: 초봉이는 무슨 말을 할 듯이 눈이 빛나다가 이어 새침하고 외면을 한다. <<채만식, 탁류>>/기생들은 하나는 방긋 웃고, 하나는 새침한다. <<이태준, 패강낭>>

새침을 떼다[따다]: (관용구) =새치미(를) 떼다[따다]. 예: 알면서 모르는 척 새침을 떼고 있자니 마음이 영 찜찜하다.

위 사전에서 ‘새침하다’는 명사 ‘새침’의 부표제어로서 ‘새침’의 아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새침’이 포함된 관용구 ‘새침을 떼다[따다]’가 ‘새치미(를) 떼다[따다]’와 같은 의미라고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궁금증이 일어난다.<sup>3)</sup>

1) ‘새침’이 명사라고 했는데, ‘새침을 떼다’의 관용구와 ‘새침을 떼다’라는 연어 구성에서만 ‘새침’이 자립적으로 쓰이고, 그 외에는 ‘새침’이 ‘새침하다, 새침스럽다, 새침데기’ 등의 단어에서만 분석된다. 이처럼 ‘새침’은 주로 단어의 구성요소로서 나타나고, ‘새침’이 격조사를 취하여 자립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새침을 떼다’와 ‘새침을 떼다’의 구성에서만, 즉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새침’을 일반적인 명사라고 할 수 있을까? 자립성이 약한 명사, 즉 관용구와 연어 구성에 의존적인 명사라고 보든지, 아니면 ‘새침’은 단어의 구성요소인 어근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앞의 두 구성에서만 목적격 조사 ‘을’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 ‘시침’의 부표제어로 ‘시침하다’, 관용구로 ‘시침(을) 떼다[따다]’를 들고 있다. 이것은 ‘새침’에 대한 처리와 같은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새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침하다’가 ‘새침’의 부표제어로, 즉 명사 ‘새침’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 설명되었다. ‘새침하다’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말 큰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sup>4)</sup> 과연 ‘새침하다’는 명사 ‘새침’에서 파생되었을까? 즉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명사 ‘새침’이 ‘새침하다’의 어기인가?

3) ‘새침을 떼다’는 자주 사용되고 ‘새침을 떼다’와 ‘새침미를 떼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들 모두 국어사전에 실려 있다. 또 ‘시침미를 떼다’를 사용할 상황이라면 ‘시침을/새침을/새침미를 떼다’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시침미를 떼다’를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용 빈도수의 차이는 보통의 국어사전을 보고는 알 수 없다.<sup>5)</sup> 그렇다면 ‘시침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사용 빈도수는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한 이 관용구들이 문헌 자료에 출현한 시기는 언제일까?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침미’가 ‘새침’의 본말이라고 하고, ‘새침을 떼다’의 의미가 ‘새침미를 떼다’의 의미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 ‘시침’이 ‘새침’의 참고 어휘라고 했고, ‘새침’과 ‘새침하다’의 뜻풀이를 보면 ‘시침미를 떼다’라는 관용구를 이용해서 설명했다. 따라서 ‘새침’, ‘새침미’, ‘시침’, ‘시

4) 『금성판 국어대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새침’을 등재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 사전에서는 ‘새침’과 ‘새침하다’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5)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시침미’와 ‘새침’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시침’과 ‘새침미’는 올라 있지 않다. 이 사전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말뭉치에서 빈도수 14회 이상인 것만을 표제어로 올렸기 때문인데, 따라서 ‘시침을 떼다’나 ‘새침미를 떼다’는 상대적으로 ‘시침미를 떼다’나 ‘새침을 떼다/떼다’보다 더 적게 사용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치미’가 서로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시침’은 ‘시치미(2.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의 준말로 뜻풀이되어 있고, 그 관용구로 ‘시침(을) 떼다 [따다]’가 등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전에 ‘시치미를 떼다’, ‘시침을 떼다’, ‘새침을 떼다’, ‘새치미를 떼다’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sup>6)</sup> 그렇다면 이 네 개의 관용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위의 질문들 중 앞의 2개는 II장에서, 나머지 2개는 III장과 IV장에서 순서대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새침’의 사전 처리

I 장에서 제시한 질문 1)과 2)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두 질문은 ‘새침하다’의 ‘새침’이 명사가 아니라 어근이고 ‘새침하다’는 어근 ‘새침’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생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결국은 국어에서 ‘새침하다’의 ‘새침’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즉 ‘새침’의 품사를 따지는 문제이다.

어떤 단어의 품사를 정하는 기준으로 흔히 형태, 기능, 의미를 든다. 우선 형태적으로 ‘새침’은 활용어미가 직접 결합하지 않는 불변화어이고,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썰썰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서 명사성이 강하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제시한 ‘새침’의 기능은 ‘새침하다, 새침스럽다, 새침데기’와 같은 단어를 구성하거나 ‘새침

---

6) ‘시치미를 떼다’, ‘시침을 떼다’, ‘새침을 떼다’, ‘새치미를 떼다’를 아울러서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들은 동사 ‘떼다’ 대신 ‘따다’나 ‘잡아떼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목적격조사 ‘을/를’이 생략될 수도 있다.

을 떨다'와 '새침을 떼다'와 같은 매우 제한된 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에 따르면 '새침'은 단어 구성에서 어기로 분석되고, 격조사 '을'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그 지위가 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어 사전에서도 그렇게 처리했다.

그러나 이렇게 '새침'의 지위가 명사라고 했을 때 그 분포가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통의 명사인 '하늘, 나무, 사람' 등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여러 가지 동사와 관련하여 격조사를 취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거나 다른 명사 앞에 쓰여 관형어로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침'이 어울려 쓰이는 동사는 '떨다'와 '떼다' 둘뿐이고, 이때 격조사로 '을'만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명사 앞에 놓여 '\*새침 아가씨, \*새침 기분' 등과 같이 관형어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홍석준(2017:210-220)에서는 '새침하다, 새치름하다, 시침하다, 시치름하다' 등의 '새침하다'류 단어의 형성을 논의하면서, 국어에서 '-하다'형 고유어 감각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단일어인 감각형용사나 '-하다'형 형용사의 어근에서 파생된 것이고 동사나 명사에서 파생된 것은 없다고 하였다(송정근 2007, 홍석준 2015).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감각형용사인 '새침하다'는 명사 '새침'에서 파생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새침하다'의 어근 '새침'이 나중에 '새침을 떼다, 새침을 떨다'와 같은 구 구성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침'이 명사적으로, 즉 명사의 자리에 사용된 예들이 점차 늘어나는 듯하다. 다음 (1)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밑줄은 필자의 것)

(1) '새침'의 명사적 용법<sup>7)</sup>

가. 청마의 위대한 허풍, 대여의 섬세한 새침, 초정의 고풍스런 무덤덤함,

- 그리고 박경리의 악마적 역셈 탓이라고. (<한겨레>, 2008. 11. 6.)
- 나. 여성의 새침이 무관심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손해다. (<동아일보>, 2005. 6. 25.)
- 다. ‘리틀 이요원’ 강초희 “새침 공주? 난, 엽기 춤꾼” (<동아일보>, 2008. 6. 23.)
- 라. 얼핏 보면 새침떼기일 것도 같은데, 김선아는 새침이나 내숭이 없었다. (<한겨레>, 2003. 10. 23.)

위 (1가, 나)에서는 ‘새침’이 관형어 ‘섬세한, 여성의’의 수식을 받고 있고, (1다)에서 ‘새침’은 그 뒤에 있는 ‘공주’를 꾸며 주고 있다. 또한 (1나)의 ‘여성의 새침’에는 조사 ‘이’가, (1라)의 ‘새침’에는 조사 ‘이나’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새침’의 분포는 일반적인 명사의 분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새침’에 대한 설명에 위 (1)과 같은 명사적 용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침’의 품사를 ‘명사’로 부여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이 만들어질 당시(1990년대)에는 (1)과 같은 예들이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새침’의 품사를 ‘명사’로 표시하는 것이 언어 사실에 일치하는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침’을 명사로 분석한 이유는 관용구 ‘새침을 떼다’에서의 ‘새침’이 ‘새침을 떼다’ 전체의 의미를 대표하여 사용되는 현상, 즉 ‘의미의 쏠림 현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박진호 2003:378). ‘시치미를 떼다’는 사용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시치미’로서 ‘시치미를 떼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예: 길동이의 시치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가 생겼다.<sup>8)</sup> 이처럼 ‘시치미’가 관용구 ‘시치미를 떼다’의 한 요

---

7) 여기 (1가, 나, 라)의 예문은 송현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소로서만 사용되다가 관용구에서 독립하여 홀로 관용구의 의미를 담당하게 된 것처럼, ‘새침’에도 관용구 ‘새침을 떼다’의 의미가 쏠려 들어가 ‘새침’만으로도 ‘새침을 떼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의미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침을 떼다’의 사용빈도수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새침을 떼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시치미’가 ‘시치미를 떼다’의 의미를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사용빈도수가 매우 높아서 ‘시치미’만으로 ‘시치미를 떼다’를 환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헌상에서 ‘새침을 떼다’의 출현빈도수를 보더라도 그 수치는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Ⅲ장 참고). 따라서 ‘새침’이 ‘새침을 떼다’의 의미를 대표한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왜 명사 ‘새침’이 관용구 ‘새침을 떼다’의 의미를 떠는 것으로 설명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시치미’가 ‘시치미를 떼다’의 전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다’와 유사한 ‘새침을 떼다’에서도 ‘새침’이 ‘새침을 떼다’의 전체 의미를 대표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표준국어대사전』의 견해가 맞다면, ‘새침’의 예문으로 ‘낮에 길에서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새침을 떨던 것이 엉큼스럽기도 하다.’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위 (1)과 같은 예문들을 들어주었어야 한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 분석한 ‘새침’은 ‘새침을 떼다’의 ‘새침’이 아니라 ‘새침하다’와 ‘새침을 떨다’에 포

8) 박진호(2007:214)에서도 ‘시치미’가 ‘시치미를 떼다’의 의미 쏠림을 겪은 예로 ‘새는 시치미의 명수야. 어쩔 저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 있을 수 있지?’를 들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국어사전들에서는 아직까지 ‘시치미’가 이렇게 의미 쏠림을 겪은 예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시치미’에 적절한 예문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함된 어근 ‘새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 (1)의 ‘새침’도 ‘새침하다, 새침데기’와 ‘새침을 떼다’의 구성에서 분석되는 어근이 최근에 새롭게 명사적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전히 ‘새침’의 본질은 어근이고 명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침’의 이러한 명사적 용법은 최근 신문에서 작가나 기자에 의해 생산된 예들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들어보기 힘들다. ‘새침’이 창조적인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이제 막 명사적 용법을 획득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명사로서의 지위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새침’처럼 어근이 점차 명사적 용법을 띠는 예로 ‘깔끔’을 들 수 있다. ‘아양을 떨다, 수다를 떨다, 새침을 떨다, 깔끔을 떨다’ 등의 ‘X를 떨다’ 구성을 살펴보면, ‘X’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아양, 수다’뿐만 아니라 어근 ‘새침, 깔끔’도 포함된다. ‘사람의 태도’를 뜻하는 명사나 어근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깔끔’에 대한 국어사전의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깔끔’을 어근으로 분석했는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로 처리하고 그 예문으로 ‘너는 왜 그렇게 깔끔을 떠니?’ 하나만을 제시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이러한 분석은 ‘깔끔을 떨다’의 ‘깔끔’이 목적격조사 ‘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깔끔’은 ‘깔끔을 떨다’라는 언어 구성에서만 격조사를 취할 수 있고 다른 문맥에서는 격조사를 취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깔끔’도 ‘새침’과 마찬가지로 어근으로서 그 의미상으로는 명사와 비슷한 부류에 속하지만, 분포상으로는 아직 ‘하늘, 나무, 사람’과 같은 보통의 명사처럼 여러 격조사를 취할 수도 없고 다른 명사의 앞에 와서 관형어로 기능하지도 않는다.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20세기 자료를 검색해 보면 ‘깔끔’이 주로 ‘깔끔하다’와 ‘깔끔을 떨다’ 구성에만

참여하고 그 외의 다른 구성에서 나타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깔끔’도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새침’처럼 관형어로나 명사처럼 기능하는 예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다음 (2)의 예들을 보자. (밑줄은 필자의 것)

(2) ‘깔끔’의 명사적 용법

가. 공중화장실 깔끔 피로가 말끔 (<동아일보>, 1999. 10. 6.)

나. 깔끔 결벽증은 일본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향신문>, 1997. 2. 1.)

다. 선동열 깔끔구원… 해태 5연승 질주 (<한겨레>, 1994. 7. 7.)

라. 불법 광고·영킨 스카이라인 깔끔 정리 (<경인일보>, 2018. 9. 18.)

마. 나르샤도 기겁하게 한 서장훈 손씻기… “깔끔도 병인가” (<국제신문>, 2017. 8. 18.)

(2가, 나, 다)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2라, 마)는 인터넷 뉴스에서 찾은 예들이다. (2가)에서는 ‘깔끔하다’에서 ‘하다’가 생략되어 어근 ‘깔끔’이 신문기사 제목의 서술어로 쓰인 것이고, (2나, 다, 라)에서는 어근 ‘깔끔’이 그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성을 이룬 예다. (2마)에서는 신문기사 제목에서 ‘깔끔’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명사적으로 쓰인 예다.

그러나 이처럼 ‘새침’과 ‘깔끔’이 명사적 용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의 지위가 명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어근이다. 어근으로서 명사적 용법을 획득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새침’과 ‘깔끔’은 각각 ‘새침하다’와 ‘깔끔하다’의 단어 구성에서 어근이었던 것이 ‘X를 떨다’ 구성의 ‘X’ 자리에 쓰이게 되어 격조사 ‘을’을 취한다는 점에서 명사와 비슷한 분포를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에는 점차 명사가 쓰이는 자리까지 그 용법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서도 이러한 용법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새침’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그 지위를 어근으로 파악하여 사전 뜻풀이를 해 보자면 다음 (3)과 같다.<sup>9)</sup>

(3) ‘새침’의 사전 뜻풀이

새침: ‘새침하다’(주로 여자가) 남에게 암전해 보이려고 쌀쌀맞게 대하다’의 어근. (구 구성에서는 주로 ‘새침을 떼다’의 꼴로 쓰이는데, 명사의 자리에도 쓰인다.)

예: 낮에 길에서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새침을 떼던 것이 영큼스럽기도 하다. / 여성의 새침은 무관심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손해다. / 김선이는 새침이나 내숭이 없었다.

이렇게 처리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침’ 아래에 두었던 관용구 ‘새침을 떼다[따다]’를 어근 ‘새침’과 분리하는 것이다. ‘새침을 떼다[따다]’가 ‘시치미를 떼다, 시침을 떼다, 새치미를 떼다’와만 관련된 것이지 ‘새침하다’의 어근 ‘새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침을 떼다[따다]’는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와 관련해서 그 아래에 달려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침’의 본말로 ‘새치미’를, 참고 어휘로 ‘시침’을 제시했던 것도 위 (3)에서는 제외했다.

---

9) (3)에서 ‘새침하다’를 ‘(주로 여자가) 남에게 암전해 보이려고 쌀쌀맞게 대하다’라고 뜻풀이한 것은 『연세 한국어사전』을 참고한 것이다. ‘새침하다’의 사전 뜻풀이에 대한 논의는 홍석준(2017)을 참조.

### Ⅲ. ‘새침하다’류 단어와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출현 시기와 빈도수

이제는 ‘새침하다’류 단어,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출현 시기와 사용 빈도수를 말뭉치에서 검색해 보고, 이들 단어와 관용구가 어떤 상관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새침하다’류 단어가 문헌상 출현한 시기를 살펴보자. 홍석준(2017: 218-220)에서 ‘새침하다’류 단어의 출현한 시기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침하다(>새침하다)’가 1848년에 간행된 『삼설기』에서 처음 발견되고, ‘시침하다(>새침하다)’가 1880년에 간행된 『한불조언』에 처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의 검색 결과 ‘새침하다’는 1923년에, ‘새치름하다’는 1965년에, ‘시침하다’는 1977년에 그 용례가 처음으로 나타났고, ‘시치름하다’의 용례는 검색되지 않았다고 한다.<sup>10)</sup> 따라서 ‘새침하다(<시침하다)’가 ‘시침하다’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홍석준(2017:220-221)에서는 ‘시침하다’는 ‘새침하다’의 제1음절 모음 ‘ㅈ’이 ‘ㅊ’로 교체되어 형성된 단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새치름하다’와 ‘시치름하다’는 ‘깨끔하다:깨끄름하다’, ‘시름하다:시크름하다’와 같은 단어쌍의 관계를 유추의 기반으로 삼아 각각 ‘새침하다’와 ‘시침하다’의 ‘-름하다’형 단어로 형성된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사전들은 지금까지 출현한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를 모두 모아 평면적으로 그 관련성을 따지고 있어서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

1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만든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의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에서 검색했다.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TW>, 2018년 8월 4일.) ‘시치름하다’의 용례는 『우리말 큰사전』(1992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말 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시침을/시치미를 떼다’와 ‘새침을/새치미를 떼다’를 모두 등재해 놓고 그 사용 빈도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sup>11)</sup>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각 변이형들이 언제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났는지 조사해 보면 이들의 형성 시기의 선후관계를 대강 따져볼 수 있다.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와 함께 ‘새침을 떨다’가 문헌상 최초로 출현한 시기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등에서 조사하면 다음 (4)와 같다.<sup>12)</sup>

- (4)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와 ‘새침을 떨다’의 최초 출현 시기
- 가. 시침을 떼다: 1895년 『국한회어(國漢會語)』, 시침을 똑따다 佯若不知<sup>13)</sup>
- 나. 시침이를 떼다: 1898년 <매일신문>, 나머지 돈은 시침이 쪼고 먹는 것을 장기로 알려
- 다. 시치미를 떼다: 1908년 신소설 <송뢰금>, 시치미를 쪼며 고담준론으로 쌀을 위로하고
- 라. 새침을 떼다: 1933년 <동아일보>, 숙경은 새침을 떼었다
- 마. 새침이를 떼다: 1923년 <동아일보>, 명수가 넘어 새침이를 떼이기 때문에<sup>14)</sup>
- 바. 새치미를 떼다: 1937년 <중생기>(『조광』 19호), 감쩍스럽게 새치미를

11) 『연세 한국어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수에 따라 표제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새치미’와 ‘새치미를 떼다’는 올라 있지 않다.

1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 word.nhn)에서는 2018년 8월 9일에 검색했다.

13) 佯(거짓 양). 佯若不知(양약부지): 알고도 모르는 체함.

14) ‘시침이를 쪼다’가 1907년에 나온 신소설 <고목화>에 한 번 나타난다. 이 예를 중시한다면 ‘시치미를 떼다’와 비슷한 시기에 ‘시침이를 떼다’가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땀 줄 아는 얼굴

사. 새침을 떼다: 1966년 <경향신문>, 집 밖에서 새침을 떨고 있을 때는

그렇다면 문헌상으로 ‘새침하다’가 가장 먼저 1848년에 나타났고, ‘시치미를 떼다’류에서는 ‘시침을 떼다’가 가장 먼저 1895년에 등장했으며, ‘새침을 떼다’는 1933년에 첫 쓰임이 발견됐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새침하다’(1848년)가 ‘새침을 떼다’(1933년)보다 한참 앞서 출현했기 때문에 ‘새침을 떼다’의 ‘새침’에서 ‘새침하다’가 파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사실은 II장에서 언급한 대로 먼저 출현한 ‘새침하다’가 나중에 나타난 ‘새침을 떼다’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한편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에서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와 ‘새침을 떼다’ 연어 구성의 시기별 출현 빈도수를 조사하면 아래 (5)와 같다.

(5)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에서의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와 ‘새침을 떼다’ 연어 구성의 시기별 출현 빈도수

구분	빈도수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합계
1. 시침(을) 떼다	0	3	4	11	5	2	24	53	105	214	421
2. 시침이 (를) 떼다	3	3	11	16	35	22	3	4	5	2	104
3. 시치미 (를) 떼다	0	4	0	1	6	42	111	162	283	529	1,138
4. 새침(을) 떼다	0	0	0	2	1	0	4	0	1	5	13
5. 새침이 (를) 떼다	0	0	0	0	0	1	0	0	1	0	2
6. 새치미 (를) 떼다	0	0	0	1	0	1	0	0	0	0	2
7. 새침(을) 떨다	0	0	0	0	0	0	1	4	5	15	25

‘새침하다’는 첫 출현 이후 지금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새침을 떼다’는 1960년대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잘 쓰이고 있다. ‘시침을 떼다’는 1910년대에 나타난 이후 1960년부터는 그 쓰임이 점차 늘어나 1990년대까지 활발히 쓰였다. ‘시침을 떼다’보다 먼저 1900년대에 출현한 ‘시침이를 떼다’는 1940년대까지 그 쓰임이 늘어나다가 195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어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시치미를 떼다’는 191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 갑자기 그 쓰임이 급속히 늘어나 1990년대에는 500회 이상의 빈도수를 나타냈다.<sup>15)</sup> ‘시침이를 떼다’의 출현 빈도수가 줄어드는 1950년대부터 ‘시치미를 떼다’의 출현 빈도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이 주목할 만하다.

‘시침을/시치미를 떼다’는 그 출현 빈도수가 상당히 많은 데에 비해 ‘새침을/새치미를 떼다’의 출현 빈도수는 매우 적다. ‘새침을 떼다’는 19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쓰임이 겨우 총 13회이고, ‘새침이를 떼다’와 ‘새치미를 떼다’는 그 출현 빈도수가 각각 총 2회뿐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시침/시침이/시치미를 떼다’가 1890년대부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비해 ‘새침/새침이/새치미를 떼다’는 앞의 것들보다 늦게 1920-30년대에 나타나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시치미를 떼다’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새침을 떼다’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새침을 떼다’는 196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앞의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X를 떼다’ 구성의 확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5) ‘시치미(를) 떼다’의 사용빈도수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나, ‘시치미(를) 떼다’가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대표형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 IV. ‘새침을 떼다’의 형성

이렇게 출현 빈도수가 적은 ‘새침을 떼다’와 ‘새치미를 떼다’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처음에 ‘시침을/시침이를/시치미를 떼다’는 ‘새침하다’와는 별다른 관련 없이 따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침이’와 ‘시치미’는 표기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 구어(口語)에서는 그 둘이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sup>16)</sup> ‘시침을/시침이를/시치미를 떼다’가 공존하는 시기(대략 1910-1950년대)가 있다가 그중 ‘시치미를 떼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오늘날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관용구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시침을/시침이를 떼다’가 모두 활발하게 쓰이던 시기인 1930-40년대에 ‘새침을/새침이를/새치미를 떼다’가 나타났다. 이들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사전에서 ‘시침을/시침이를/시치미를 떼다’는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를 하며 태연한 태도로 있다’는 뜻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시침하다’이다. 이들의 의미는 ‘새침하다’와 매우 비슷하다. ‘새침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쫄쫄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라고 뜻풀이했는데, 여기에는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라는 의미 외에 ‘쫄쫄맞다’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렇게 뜻풀이를 한 이유는 그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에서 대부분, 특히 『우리말 큰사전』에서 이렇게 뜻풀이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6)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는 ‘시침’은 ‘시치미’의 준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침’에 ‘-이’가 결합하여 ‘시침이~시치미’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항범(2009:45) 참고.



그러나 ‘새침하다’가 쓰인 예문을 보면 ‘시치미를 떼는 태도’라기보다는 ‘쌀쌀맞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석준 2017:207-208). 다음 (6)과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침하다’의 예문으로 든 문장들에서는 ‘새침하다’에 ‘모르는 체하는 태도’라는 뜻은 느껴지지 않고 ‘상냥하지 않은 태도’의 뜻만 나타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6) 가. 그녀는 짐짓 새침한 얼굴로 명훈을 흘겨보았다. (이문열, <변경>  
나. 소리 없이 새침하게 자리에 앉는 그 자태는 연산의 마음을 더욱  
불붙게 한다. (박종화, <금삼의 피>)

위 (6가)에서 그녀는 명훈을 보고도 못 본 체한 것이 아니고 명훈에게 대하여 일부러 쌀쌀한 표정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6나)에서도 연산의 앞에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연산을 보고도 모르는 체한다기보다는 암전한 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새침하다’의 뜻풀이를 ‘(주로 여자가) 남과 쉽게 어울리지 않고, 딱딱하고 암전하게 보이려고 하다’로 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뜻풀이가 다른 사전, 대표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쌀쌀하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새침하다’는 기본적으로 암전하게 보이려고 남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쌀쌀맞기도 하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해 보이기 쉽다. 그런데 이때의 무뚝뚝하고 불친절함이 시치미를 떼 때의 행동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알고도 모른다고

17) 『(修正增補)朝鮮語辭典』에서는 ‘새침하다’의 뜻풀이를 ‘겉으로만 암전한 체를 하고 있다.’로 했다. 이것을 보면 ‘새침하다’에 ‘시치미를 떼는 태도’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았다.

잡아떼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기보다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즉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침을/새침이를/새치미를 떼다’가 사용된 문맥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약 90% 이상) 여자의 행동에 대한 서술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7)과 같은 예문에서 그러한 경향이 잘 나타난다. (밑줄은 필자의 것)

(7) 고전무는 엄지손가락으로 수염을 건드리며 점잖게 시치미를 뺀고 제 자리에 되돌아 온 유현자는 전표를 정리하면서 안전하게 새치미를 뺀다.(김내성, <실락원의 별>, 1957년)

이에 비해 ‘시침을/시침이를/시치미를 떼다’는 그 서술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다. 이처럼 ‘새침을/새침이를/새치미를 떼다’가 주로 여자의 행동을 서술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점은 ‘새침하다’의 용법과 같다. 그렇다면 ‘새침을 떼다’의 ‘새침’은 ‘새침하다’의 ‘새침’과 같은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새침하다’의 ‘쌀쌀맞음’과 ‘시침을/시침이를/시치미를 떼다’의 ‘쌀쌀맞음’이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새침’과 ‘시침’이 그 형태도 비슷하여 ‘시침을 떼다’의 ‘시침’ 자리에 ‘새침하다’의 어근 ‘새침’이 쓰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침하다’와 ‘시침을 떼다’가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새침하다’의 ‘새침’과 ‘시침을 떼다’의 ‘시침’이 형태적으로도 유사하여 ‘시침’이 ‘새침’으로 교체되어, 즉 혼효(混淆)되어 ‘새침을 떼다’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sup>18)</sup>

18) 한 심사자는 혼효(混淆)가 ‘두 어형 사이에서 양쪽의 일부를 취하여 새로운 어형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새침을 떼다’가 ‘새침하다’라는 단어와 ‘시침을 떼다’라는 관용구 사이의 혼효라고 설명하는 것은 기존의 혼효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혼효는 두 단어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구(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침을 떼다’와 ‘새침하다’가 의미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둘이 유의관계에 놓여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 둘의 의미가 혼동되어 ‘새침하다’의 뜻풀이에 ‘시침을 떼다’의 의미가 끌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사전에서 ‘새침하다’의 뜻풀이에 ‘새침하다’의 기본 의미인 ‘쌀쌀맞음’과 ‘시침을 떼다’의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치미를 떼다’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시치미를 떼다: 시침을 떼다’의 관용구쌍이 존재하고 그 중 ‘시침을 떼다’와 유사한 ‘새침을 떼다’가 있었기 때문에 ‘시치미를 떼다: 시침을 떼다’의 관계에 유추하여 ‘새치미를 떼다: 새침을 떼다’의 새로운 관용구쌍이 형성되면서 ‘새치미를 떼다’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침하다’류 단어와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8)과 같다.

구성이나 구문(句文)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보통은 같은 문법단위 사이에서 혼효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설명과 같이 단어와 구 사이에서도 그 의미의 유사성에 의해 유추적인 변화(‘시침을 떼다’의 ‘시침’이 ‘새침’으로 대체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英語學辭典』, 『언어학사전』(3판 [개정증보판]), 이선웅(2012:98-101), 석혜매(2018) 참고.

또한 이 심사자는 ‘시침을 떼다’의 ‘시침’이 ‘새침’으로 바뀐 것을 내적 파생(또는 모음 교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시침’의 제1음절 모음 ‘ㅣ’가 ‘ㅍ’로 바뀌어 ‘새침’이 됨으로써 ‘음성모음:양성모음’의 대립을 이루어 ‘새침을 떼다’가 ‘시침을 떼다’보다 가볍고 귀여운 느낌을 주고, 따라서 주로 여자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정인호 2013 참고).

한편 ‘시침을 떼다’가 ‘새침하다’와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시침’이 ‘새침’과 형태적으로도 비슷하여 ‘새침’으로 형태가 변했다고 해석한다면 전염(傳染)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진호(2016)에서는 ‘전염’을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언어요소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비슷해지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

(8) '새침하다'류 단어와 '시침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상관관계<sup>19)</sup>

'새침하다'류 단어 및 연어	'새침하다'와 '시침을 떼다'의 혼효, 유추	'시침을 떼다'류 관용구
새침하다(1848년)		시침을 떼다(1895년) 시침이를 떼다(1898년) 시침미를 떼다(1908년)
	새침을 떼다(1933년) 새침이를 떼다(1923년) 새침미를 떼다(1937년)	
새치름하다(1965년) 새침을 떨다(1966년)  시침하다(1977년) 시치름하다(1992년)		

## 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새침하다, 새침스럽다, 새침데기'의 '새침'은 명사가 아니라 어근이다. '새침을 떨다'는 'X를 떨다' 연어 구성에서 'X'자리에 어근인 '새침'이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새침'을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침: '새침하다'(주로 여자가) 남에게 얄전해 보이려고 쌀쌀맞게 대하다'의 어근. (구 구성에서는 주로 '새침을 떨다'의 꼴로 쓰이는데, 명사의 자리에도 쓰인다.)

예: 낮에 길에서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새침을 떨던 것이 영큼스럽기도 하다. / 여성의 새침은 무관심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손해다. / 김선은 새침이나 내숭이 없었다.

19) ( )안의 연도(年度)는 최초 출현 시기이다.

이러한 설명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과 다른 점은 ‘새침을 떼다’를 ‘새침하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새침’이 ‘새침을 떼다’에서 의미의 쏠림 현상을 겪은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새침’이 아직 의미의 쏠림 현상을 경험할 만큼 사용빈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비해서 ‘시치미’는 사용빈도수가 아주 높은 ‘시치미를 떼다’로부터 의미의 쏠림을 받아서 ‘시치미’가 ‘시치미를 떼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치미를 떼다’류 관용구의 사용 빈도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부류의 관용구들을 말뭉치에서 검색하여 문헌상에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와 시기별 사용 빈도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침을/시침이름/시치미를 떼다’가 먼저 출현하고 ‘새침을/새침이름/새침미를 떼다’가 나중에 출현했으며, ‘시치미를 떼다’가 1950년대 이후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이들 관용구의 대표형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침을 떼다’는 ‘새침하다’의 ‘새침’과 ‘시침을 떼다’가 혼효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새침하다’의 의미와 ‘시침을 떼다’의 의미가 유사하고 또 ‘새침’과 ‘시침’의 형태가 비슷하여 ‘시침’ 자리에 ‘새침’이 들어가서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국어 감각형용사의 어근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못하다. 어근의 형성 방법과 그 특징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면 ‘새침하다’의 어근 ‘새침’을 명사로 판단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꼼꼼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1999.(국립국어원 온라인 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金東旭 編, 『삼설기』 권지삼 <노처녀가>, 『古小說板刻本全集 第1冊』,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p.26.
- 문세영, 『(修正增補)朝鮮語辭典』, 朝鮮語辭典刊行會, 1942.
- 박진호,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pp.361-379.
- 박진호, 『의미의 쏠림 현상에 대하여』, 남성우 외, 『국어사 연구와 자료』, 태학사, 2007, pp.211-224.
- 박진호,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한국어학』 40-4, 한국어학회, 2016, pp.619-632.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석혜매, 『한국어의 혼효, 잉여표현, 전염 현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송정근,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 동아, 1998.
- 운평어문연구소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6.
- 이선웅,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12.
- 이익섭,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pp.155-165.
- 이정민 · 배영남 · 김용석, 『언어학사전』(3판 [개정증보판]), 博英社, 2000.
- 정인호, 『어감 표현과 전설고모음화의 한 유형』, 『우리말글』 57,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pp.55-77.
- 趙成植 編, 『英語學辭典』, 新雅社, 1990.
- 조항범,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예담, 2009, p.45.
-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 홍석준, 『국어 색채형용사의 어휘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홍석준, 『새침하다류 단어의 사전 뜻풀이와 단어 구조 분석』,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2017, pp.199-226.

**Abstract**

The Explanation of the Korean dictionary on '*saechim*'  
and the formation of '*saechimeul tteda*'

Hong, Seok-jun

This article revealed that '*saechim*' of '*saechimhada*' is not a noun, but a root, and suggested how to handle '*saechim*' in the Korean dictionary. We also investigated as when the words of '*saechimhada*' and the idioms of '*sichimileul tteda*' first appeared in literature and deduced how to form '*saechimeul tteda*' by comparing their appearance relationship. In most of the Korean dictionaries, '*saechim*' is treated as a noun, which means that the whole meaning of '*saechimeul tteda*' is focused on '*saechim*' and used as a noun alone. However, '*saechim*' cannot be used as such because the frequency of use of '*saechimeul tteda*' is not large enough to demonstrate the meaning absorption phenomenon. Although the use of '*saechim*' as a noun has been on a constant increase since the 2000s, the status of '*saechim*' is still a root. By examining the timing and frequency of the appearance of '*sichimileul tteda*' type of idioms, we confirmed that '*sichimileul tteda*' appeared earlier and has been used much more than '*saechimeul tteda*' until recently. It was analyzed that '*saechimeul tteda*' was made by blending '*saechim*' of '*saechimhada*' and '*sichimeul tteda*'.

Key Word : *saechim*, root, Korean dictionary, *saechimeul tteda*, *sichimileul tteda*, frequency, meaning absorption phenomenon, blending

홍석준

소속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전자우편 : stonehong1@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